

구례군 지리산권 연계 발전 방안 찾기 분주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9월 1일 다채로운 기념행사

공동발전 담은 비전 선포

조성 끝난 지리산정원도 개장

구례가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지리산권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하다.

구례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보고회'를 갖고 세부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구례군은 지리산국립공원 지정(1967년 12월 29일)이 1963년 구례군민들의 지정추진위원회 구성과 1만 가구 성금 모금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50주년 행사의 의미를 남다르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군은 이같은 점을 반영, 이번 50주년 기념행사(9월 1일)를 계기로 '깨우다·있다·



구례군 지리산정원 내 생태숲 전경.

<구례군 제공>

지키다'라는 슬로건을 반영한 구례·지리산 발전방향을 담은 비전을 선포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특히 세계 최초로 지역민 힘으로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의 역사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리산·국립공원·지역민, 탐방객이 소통하면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 더 나은 친환경적 지리산과 구례를 만들어가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엄홍길대장과 구례 연하반을 걸으며 국립공원 지정 의미를 되새기는 ▲지리산 트레킹, 연하반 산악화원을 중심으로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에 힘쓴 ▲명예산악인 선

발, 지리산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일 초·중·고교생들로 이뤄진 ▲주니어 레인저 임명, 영상·광고 공모전 등도 이같은 취지로 진행된다.

구례군은 또 기념식에 맞춰 지리산정원 개장식을 개최, 국내 최대 산림복합휴양단지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힐 예정이다.

지리산정원은 생태숲(155ha)·지리산자생식물원(15ha)·수목원(54ha)·자연휴양림(34ha)·야생화테마랜드(23ha)·숲속수목가옥(10동) 등을 포함한 자연휴양림으로 구례군은 단계별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개장식을 갖는다.

구례군 관계자는 "기념식을 계기로 자연을 사랑하는 구례 지역민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리산을 보전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행사가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이틀간 구례 서시천체육공원에서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지난 24일 희망곡성 영어캠프에 참여한 곡성 지역 초등학교 30명이 강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곡성군 제공>

초등학교 66명 '희망곡성 영어캠프' 운영

곡성군은 장흥 전남영어마을 수련원에서 28일까지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7년 희망곡성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영어학습과 영어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곡성지역 8개

초등학교 5~6학년 66명이 참여한다. 캠프는 2차례로 나뉘어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원어민 강사의 전문적인 지도에 상황별 영어체험 프로그램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고흥 천문과학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망원경으로 밤 하늘을 관찰하고 있다.<고흥군 제공>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여름방학 맞아

토성·목성 동시 관측 등 체험행사 마련

아이들 방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과학만 한 게 없다. 손으로 만지작거리기 실험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기 쉽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도 다양한 체험으로 아이들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는 알짜 프로그램들을 마련, 부모님들을 유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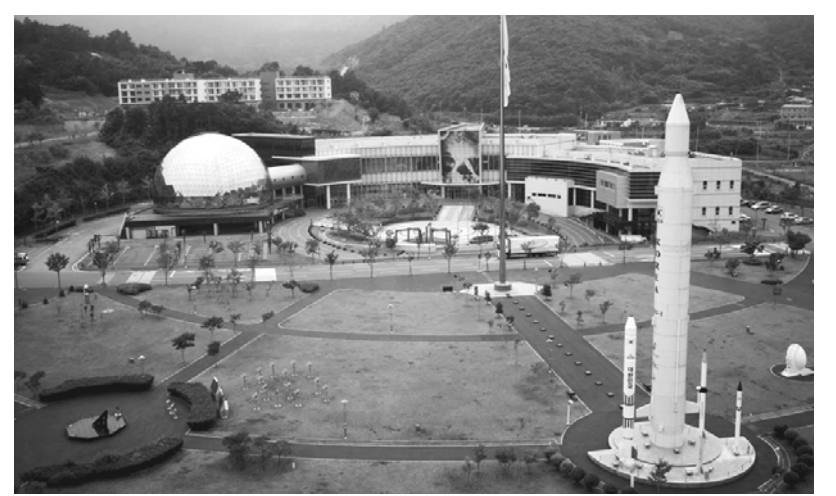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다음달 20일까지 '토성과 목성을 동시에 관측하는 공개 관측' 프로그램을 마련,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토성과 목성은 공전주기가 달라 동시에 관측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올 여름에는 토성과 목성이 동시에 관측이 가

능하다는 게 우주천문과학관 설명이다.

이달 말까지는 토성, 목성, 화성 관측이 가능하고 다음달에는 토성과 화성을 관측할 수 있는 행성 관측의 적기라는 것이다. 다음달 2~3주 정도에는 달을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과학관 관계자 귀뜸이다.

천문과학관은 이 때문에 운영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했다. 더불어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사진을 촬영해보는 체험 활동과 티셔츠에 자신의 별자리를 새기는 프로그램, 망원경 만들기, 드론 날리기, 휴대전화를 활용한 VR 체험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나로우주센터 발사현장 전학 접수 쇄도

우주항공축제 기간 맞춰 모집...정원 70% 예약 끝나

올해 처음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나로우주센터 발사현장(사진)을 둘러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나로우주극장, 별, 별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제 10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 맞춰 모집중인 나로우주센터 발사현장을 견학하려는 문의가 잇따르면서 신청자가 70%를 넘었다는 것이다.

발사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1일 12회 운영하며 1회 정원은 135명이다. 하루 최대수용인원은 1620명이다.

군은 참여 신청이 많은 나로우주센터 발사현장 견학 프로그램의 경우 횟수를 늘려 진행하기로 했지만 예약 신청

이 잇따르면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고흥우주항공축제 홈페이지(festival.goheung.go.kr)나 나로우주과학관 홈페이지(www.narospacecenter.kr)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나로우주센터 발사현장 견학은 작년에도 예약을 시작하자마자 우주과학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군 관계자는 "현재 70%의 예약이 모두 끝났다"면서 "국내 유일한 우주센터를 둘러볼 수 있는 점에서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어촌에서 미래 열어나갈 젊은 어부 찾습니다

고흥군 김·가리비 등 양식 어장 제공
귀여 청년 41명 9월 30일까지 모집

어촌에서 미래를 일궈나갈 젊은 어부 없나요?

고흥군이 청년 어부를 찾는다. 45세 이하 도시 청년들이 대상으로, 도시 청년들이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신규 어장도 개발해 놓았다.

김 어장은 고흥만 일대 20ha(25명), 미역은 소록도와 수락·부야도 일대 6ha(6명), 가리비를 양식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수락도 2.5ha(10명)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김(500ha), 미역(40ha), 가리

비(25ha) 등 총 565ha에 달하는 신규 어장을 개발해놓고 있다.

고흥군은 귀여 청년 41명을 선정, 5년간 어업 공간을 제공해 양식활동을 도울 계획이며 이후 반납받아 새 귀여 청년에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문의 061-

830-5436.

고흥군 관계자는 "희망 청년 어부는 현장을 견학하고 선배 양식업자와 멘토·멘티를 결성해 양식기술을 습득을 돕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급 매”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나주, ㄷ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